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남 현 주 윤 형 식 이 태 영 신 채 영 이 동 훈[†]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에 대한 국내논문 86편과 국외논문 31편이 분석되었다. 그중 양적논문은 90편, 문헌고찰 논문 16편, 질적연구 논문 9편이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한부모 가정의 형성원인과 유형에 따른 특성, 둘째, 빈곤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미치는 영향, 셋째, 한부모 가정 자녀의 발달 및 적응문제(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 문제, 학교 적응 문제, 자녀의 부모화 문제, 가족구조의 결손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 넷째,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개인 내적 보호요인, 긍정적 부모-자녀관계의 기능, 가족탄력성, 공동양육자의 역할, 사회적 지지의 역할),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한 개입 및 지원 프로그램 동향.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한부모 가정, 청소년, 발달, 적응, 문헌고찰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3A2033877)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1103호
Tel : 02-760-0558, E-mail : dhlawrence05@gmail.com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갖게 되었다.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녀, 모-자녀 가정을 의미하며, 이혼, 사별, 미혼모·부, 별거, 유기 등으로 발생된다(Billingsley & Giovannoni, 1971). 2010년도 인구 총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족형태는 양친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37%,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15%, 1인 가구 24%,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9%, 기타 15%로 조사되었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7.8%(1,136,366명)에서 2005년에는 8.6%(1,376,021명), 2010년에는 9.2%(1,594,024명)로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한부모 가정의 유형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모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가 한부모 가정의 78%를 차지하며 부자가구는 22%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이와 같이 한부모의 형성 원인과 유형이 다양하며 그와 함께 한부모 자체가 지니는 특성에 따라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은 단순히 한쪽 부모가 부재하는 가족구조의 변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즉, 가족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양육문제, 남녀역할 재조정문제, 경제적 어려움 및 소외감, 상실감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능적 변화를 초래한다(신애란, 2002). 여러 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교육문제'였으며, 올바른 가정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자녀의 학업중단 등의 문제 역

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9. 10. 10; 여성가족부, 2006). 또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의 구성원들은 우울, 스트레스, 자살생각에서 양부모 가정보다 훨씬 더 취약하였으며,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1. 08. 25).

발달 단계 상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 독립성 획득, 학교생활 적응 등의 새로운 개인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급격한 신체변화와 함께 주어진 심리적, 사회적인 요구는 청소년기에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직·간접적인 역할 요구, 가정환경,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에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발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개인적 발달과업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한부모 가정이라는 환경에의 적응이라는 이중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배우자 부재로 인한 이중 역할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그 결과 부모의 관심과 도움, 지도감독을 덜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들로 하여금 일관성 없는 행동, 성격장애, 비행, 가출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양소

영, 2002), 한부모 가정 자녀는 양부모 가정의 자녀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석소현, 신성희, 2010; Garg, Melanson, & Levin, 2007) 사회성이 떨어지며, 우울증과 학교문제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김수주, 2004; Sterrett, Jones, & Kincaid, 2009) 보고되고 있다.

이제까지 한부모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한부모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결혼 가정’이라는 주요어로 검색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인 1964년에서 1999년까지 35년간 89편의 연구들을 검색할 수 있으나, 2000년 이후 10여 년 간 이루어진 연구가 그 두 배인 178편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결혼 가정이란 용어가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게 한다는 이유로 ‘한부모 가정’이란 용어를 쓰게 되었는데, ‘한부모 가정’이라는 주요어로 이루어진 2000년 이후의 연구들이 70편 정도로 이것 까지 더하면 2000년 이후부터 한부모 가정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연구는 가족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 자녀 관련 연구들은 한부모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나 한부모 가정 자녀의 부적응에 초점을 두고 자녀의 적응문제나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주를 이루어왔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심리사회적, 학업적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과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양부모가정 청소년들

과 발달상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Amato(1993)는 이혼 가정의 청소년들 중에서도 학업성적, 대인관계, 자존감에 있어서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존재하며 부모의 이혼 여부만으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부모 가정 청소년 중에서도 학업성취가 높고 심리사회적으로 안정되어 학교에 잘 적응 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이명순, 2006).

또 다른 선행 연구들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체계가 안정적이고 다양한 사회적지지 속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민강, 이희영, 최태진, 2012; 김승경, 강문희 2005; 남영옥, 2010; 류경희, 2003; 이숙, 지선례, 2010; 장덕희, 장경아, 2009; Amato, 2000).

2000년 이후 한부모 가정에서 증가하는 연구의 수 만큼 다루고 있는 변인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들어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들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을 돕는 다양한 매개변인과 중재변인들의 관계(김행섭, 김진숙, 2009; 김현주, 이성애, 2011; 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 2012; 이주리, 2008; Mustonen, Huurre, Haukkala, Kiviruusu, & Aro, 2011)를 살펴보거나, 결손의 관점이 아닌 가족의 기능적 측면을 더 강조한 관점(Jablonska & Lindberg, 2007; Sterrett et al., 2009), 보호요인(김선아, 2011; 이주리, 2008; Milevsky, Schlechter, Nettter, & Keehn, 2007)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

움을 주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국내외 학술지 전반에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 및 적응과 관련된 연구의 고찰을 통해 최근의 연구 동향과 주요 관심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특성과 이들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완화, 이들의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상담, 교육적 개입 수립과 적응, 이와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본 연구에서 살펴본 논문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에서 ‘한부모 가정’, ‘이혼가정’, ‘사별가정’, ‘한부모 정책’, ‘한부모 가정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 자녀’, ‘한부모 자녀 발달’, ‘한부모 자녀 적응’, ‘여성 한부모’, ‘남성 한부모’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한 자료 중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의 정의에 근거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정하였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국외논문은 Academic Search Complete(EBSCO), BIOMEDI, Google, PsycARTICLES, PsycINFO, SCOPUS, Wikipedia에서 ‘single parent’, ‘divorced

〈표 1〉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연구주제별 동향

연구 주제	편수	비율(%)
빈곤/경제적 어려움	3	3
발달 및 적응 관련	49	41
보호요인 관련	27	23
개입 프로그램	24	21
정책 관련	12	10
기타	2	2

family’, ‘single father’, ‘single mother’과 ‘adolescent’를 포함하여 검색하였고, 그 중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다.

검색항목은 전체, 논문명(Full Title), 저자(Author), 주제어(Keyword), 초록(Abstract)이었으며, 2000년 이후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된 자료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 발달에 대한 국내 논문 86편과 국외논문 31편 총 117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양적연구 논문이 90편(77%)로 가장 많았고, 문헌고찰 논문이 16편(14%), 질적연구 논문은 9편(8%),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방법을 병행한 논문이 2편(2%)으로 나타났다. 주제에 따라서는 빈곤 관련 논문이 3편(3%), 발달 및 적응에 관한 논문이 49편(42%), 보호요인 관련 논문이 27편(23%), 프로그램 관련 논문이 24편(21%), 정책관련 논문이 12편(10%), 기타가 2편(2%)으로 나타났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외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한부모 가정 자녀와 관련

된 연구 주제와 대상, 연구결과, 논의, 제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첫째, 한부모 가정의 형성원인과 유형에 따른 특성, 둘째, 빈곤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미치는 영향, 셋째, 한부모 가정 자녀의 발달 및 적응 문제(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 문제, 학교적응 문제, 자녀의 부모화 문제, 가족구조의 결손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 넷째,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개인 내적 보호요인, 긍정적 부모-자녀관계의 기능, 가족탄력성, 공동양육자의 역할, 사회적 지지의 역할), 다섯째,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한 개입 및 지원 프로그램 동향으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한부모 가정의 형성원인과 유형에 따른 특성

한부모 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되고, 가족구성에 따라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형성원인에 있어서 이혼가정은 이제 우리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가족형태이다. 이혼가정의 증가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대체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부간의 갈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갈등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Davies & Forman, 2002). 이혼가정 자녀는 한쪽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분리에서 오는 상실감, 이혼으로 인한 생활 및 경제적 환경의 변화, 부모간의 갈등과 친족들간의 관계변화에 따른 긴장감과 감정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Baris, 1994).

사별가정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의 상실로 형성된 한부모 가정의 한 형태로, 부모 중 한사람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이 제공한 경제적 수입, 정서적지지 등의 상실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Kubler-Ross & Kessler, 2000). 가족사별의 슬픔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영역 등 다양한 방면으로 표출된다. 유가족은 충격, 부정, 혼란, 분리에 대한 고통 등을 경험하면서 가족 내 갈등을 겪기도 한다(공수연, 양성은, 2011).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사별경험은 심리 정서적인 성장을 저해시키며, 발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Fleming & Adolph, 1986).

부모 중 한사람이 죽은 뒤 남아있는 가족들의 심리적 적응이 중요하지만(Mercer & Evans, 2006), 국내의 경우 사별가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대동, 2004).

이혼가정이냐 사별가정이냐에 따라 사회적 인식은 차별적인 경향을 보인다. 사별은 가족구성원들이 적응하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보고 이해하는 반면(Walsy & McGoldric, 1991), 이혼은 인위적인 결정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이별을 야기한 것으로 사별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본다(Guttmann, Geva, Gefen, 1988). 성정현, 송다영, 한정원(2003)은 이혼가정 및 사별가정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사별가족 아동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우울하다고 평

가한 반면, 이혼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며, 공격성을 비롯한 문제행동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평가는 사별가정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이혼가정과 사별가정 자녀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이혼가정 자녀가 더 많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공격적, 일탈적, 과잉 행동이 많은 것으로, 사별가정 자녀들은 위축, 퇴행행동을 보이거나, 학교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배미경, 2010;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차유립, 2011; Amato & Keith, 1991).

미혼모 가정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임신하였거나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는 미혼모(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모자가정의 한 형태에 포함된다. 미혼모는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자녀 양육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회로부터의 낙인과 편견, 원가족과 단절을 경험하며, 경제력을 잃고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하기도 한다(김혜영, 2012; 김희주, 권종희, 최형숙, 2012). 현재 미혼모 관련 연구들은 미혼모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미혼모 자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미혼모 자녀들의 발달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이혼 후 함께 사는 한부모의 성별에 따라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자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나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르다(성정현 외, 2003).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장덕희와 황동섭(2009)은 이

혼한 부자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정도가 모자가정 자녀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반면, 배미경(2010)은 모자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정도가 부자가정 자녀보다 긍정적이라고 보고하는 등 연구마다 결과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주리(2010)는 부자가정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아버지의 소득이 영향을 미치며 모자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감독 수준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자가정 자녀와 모자가정 자녀는 학교적응에 있어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자가정의 경우 모자가정에 비해 양육과 돌봄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자녀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진미, 2006), 모자가정 자녀보다 부자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낮을 수 있다. 반면 모자가정은 부자가정에 비해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득수준이 낮고(여성가족부, 2006) 이는 장시간의 노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모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오승환, 2001) 모자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모두 사회적 편견이라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지만, 모자가정은 경제적 궁핍,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부자가정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으며(황은숙, 2007). 이러한 어려움들이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자가정의 여자 자녀의 경우 모자가정의 자녀들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는데(오승환, 2001), 자녀가 사춘기 여자청소년일 경우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 변화와 정서적 변화가 발생할 때 남성한부모는 여자 청

소년 자녀를 대하는데 있어서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며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 자녀와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lman,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은 형성원인에 따라 이혼가정, 사별가정, 미혼모 가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구성에 따라서도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은 가정의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 문제 등과 같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형성원인과 형태에 따라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의 형성원인과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빈곤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미치는 영향

빈곤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히, 빈곤이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함께 나타날 때 자녀의 발달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선, 2008;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Lichter, 2007). 국내 한부모 가정의 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는 2005년 9.0%(123,666가구)에서 2011년 11.5%(188,969가구)로 꾸준히 그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2). 국외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인 경우 거의 50%가 이혼 후 빈곤에 처한다고 보고하고 있어(Fagan & Rector, 2000), 한부모 가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진욱, 2010).

한부모의 성별에 따라서도 빈곤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2011년에 조사된 가정 유형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 모자가정이 83,525가정, 부자가정이 20,479가정으로 나타나 모자가정이 부자가정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 2012). 이처럼 모자가정의 빈곤비율이 부자가정보다 높은 이유는 모자가정의 여성가장이 이전에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경우 혼자서 새롭게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지만, 차별적 노동시장, 복지정책의 부족, 낮은 학력수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취업이나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수정, 2007; 허미영, 2006). 모자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으나, 부자가정 소득 수준이 양부모 가정의 약 48%에 불과한 만큼(오승환, 2001), 부자가정 또한 양부모 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대체로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한부모의 성별에 따라서도 상대적으로 빈곤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부모 가정의 빈곤은 자녀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석주영, 박인진, 2009; 홍순혜, 2004). 빈곤은 한부모의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한부모 가정 자녀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최근 국내 연구에 의하면 빈곤 아동은 저신장과 높은 비만도 수치를 보이면서 성장부진과 비만 가능성을 함께 보이는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일반 아이와 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신인순, 2008). 빈곤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빈곤층은 환경에 대한 지배력이 낮은 집단이다. 빈곤한 한부모는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몰입이 어려워 경제적인 취약성이 증대되는 악순환을 경험한다(고은주, 김진옥, 2009). 따라서 그들은 자녀를 돌볼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없고 자녀들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값싼 인스턴트 음식들이나,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빈곤은 한부모 가정 자녀의 비만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달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지 발달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박현선, 이현주, 정익중(2011)의 빈곤과 비빈곤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를 살펴본 종단연구에 의하면, 비빈곤 자녀는 시간이 갈수록 학업성취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방향을 보이나 빈곤한 자녀는 성취수준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변화방향을 보였다. 즉, 초등과정에서 학업성취가 좋았던 빈곤아동들도 중등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부모 가정 자녀가 양부모 가정 자녀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Hampden-Thompson, 2009). 이러한 양육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거나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으며(박한샘, 연문희, 2004), 빈곤은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경상, 2011).

빈곤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빈곤은 자녀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인 빈곤을 경험할수록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혁, 2010). 청소년기의 빈곤 경험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증가시키며(Dumka, Roosa, & Jackson, 1997),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청소년의 또래 갈등과 비행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성경, 2002; 최윤정, 이시연, 2006; Goosby, 2003)

빈곤은 부모의 스트레스로 이어져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감소시키게 되고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대함으로써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저소득 빈곤가정의 한부모는 배우자의 상실 외에도 역할과중, 사회적 관계 형성의 제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Christopher, 2000) 자녀양육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에 대한 교육, 보호, 감독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자녀가 유해한 환경에 방치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장애를 나타내기도 한다(박찬인, 양정빈, 2010). 이러한 빈곤의 영향으로 인한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신체적 영역(신인순, 2008), 인지적 영역(Hampden-Thompson, 2009), 심리적 영역(McLeod & Shanahan, 1993)과, 사회적 영역(최윤정, 이시연, 2006)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홍순혜(2004)는 부모 이혼 자체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가정의 경제수준이나 이에 영향을 받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경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혼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자녀 및 부모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 자녀는 빈곤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부모의 결손이라는 요인을 통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방임될 가능성이 높아 이중적인 위협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빈곤은 부모의 적응과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건강문제, 학업적 적응,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과 빈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내나 국외 연구 할 것 없이 여성 한부모 가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빈곤한 부모의 스트레스나 양육태도로 인하여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수정, 2007; 허미영, 2006). 빈곤과 남성 한부모 가정 혹은 빈곤이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발달 및 적응문제

가족 구조의 전환을 경험한 한부모 가정 자녀는 발달 과정에 있어서 외현화, 내면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Magnuson & Berger, 2009; Sterrett et al., 2009). 외현화 문제는 일탈행동을 개념화하는 행동구조의 하나로 공격성, 과잉 행동, 불복종, 짜증 및 비행행동과 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상의 문제이고, 내면화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위축 행동,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나 상실감 등의 감정처리를 해야 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와 생활상의 변화에 적응

하는 문제, 부모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하는 역할 과중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특별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오승환, 2001).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 문제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 취약성과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부모의 이중 역할 등의 이유로 부모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자녀들의 일관성 없는 행동, 비행, 가출 등의 외현화 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오미경, 이수희, 2010).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공격성과 높은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홍순혜, 2004), 김선아(2011)에 의하면, 이혼가정 아동은 초등학교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정자(2005)는 이러한 공격성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는 양부모 가정 자녀에 비해 공격성 뿐만 아니라 인터넷중독(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1), 마약 및 알코올과 같은 약물남용(Fagan & Rector, 2000; Mandara, Rogers & Zinbarg, 2011), 청소년기 성관계 문제(Fagan & Churchill, 2012) 등의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는 외현화 문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 자살충동 등의 내면화 문제를 함께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유안진 외, 2005). 외현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부모 가정 자녀는 대체로 양부모 가정 자녀보다 내면화 문제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윤명숙 외, 2012; Bjarnason, Andersson, Choquet, Elekes, Morgan, & Rapinett 2003). 김정민과 유안진(2005)의 연구에서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정도가 높고, 부모의 이혼여부가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부모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이주리, 2008), 한부모 가정 자녀가 양부모 가정 자녀에 비해 자살시도자 수가 많은 편이었다(이운주, 김경화, 민하영, 2008). 고정자(2005)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 자살충동과 같은 내면화 문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차이로 인해 여학생의 경우 공격성에 대한 억압이 남학생보다 크기 때문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면화 행동이 더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부모 가정 자녀의 우울, 외로움, 자살충동 등의 다양한 내면화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

학교적응 문제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의 장일 뿐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특유의 생활권으로, 학교에서의 적응은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 필수과업이라 할 수 있다(Rice & Dolgin, 2009).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아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김민경, 최은영, 2003; Esmaeili, Yaacob, Juhari, & Mariani, 2011), 양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교육적 포부가 낮으며(Garg et al., 2007; Wang & Ngai, 2011), 학습부적응 및 대인관계부적응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김민강, 이희영,

최태진, 2012; 이혜승, 2004; 지은선, 조결자, 2002; 채선미, 이영순, 2011).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낮은 교육성취와 더불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유로운 진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또한 이혼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도벽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며 문제아로 낙인되고, 양부모 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사회성으로 또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Fagan & Rector, 2000). 이러한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무단결석을 하는 횟수가 많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금명자, 2008; Fagan & Rector, 2000). Fagan과 Rector(2000)의 연구에서 이혼가정 자녀는 양부모 가정 자녀보다 고등학교 중도탈락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대학진학 또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부모 가정 자녀의 다양한 학교부적응 문제를 보고하는 반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문제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가 양부모 가정 자녀와 학교 적응에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연구들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체계가 안정적이며(이숙, 지선례, 2010; 장덕희, 장경아, 2009; Amato, 2000), 사회적 지지를 받는(김승경, 강문희 2005) 등 한부모 가정 자녀가 심리사회적으로 안정될 경우, 양부모가정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남영옥, 2010; 정묘순, 2011; Thomas, Yiota, Christina, & Olympia, 2011).

자녀의 부모화 문제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족구성원들의 역할분

담 문제에 따라 자녀는 부모화(parentification) 경험을 하게 된다(김정민, 이유리, 2010; Ehrensaft, Cohen, Chen, & Berenson, 2007; Hooper, 2007). 부모화란 자녀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돌보는 부모-자녀 간의 역할전이 상태를 의미한다(조은영, 2004). 가족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쪽 부모의 확실한 부재로 인하여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한부모 가정 자녀는 양부모 가정 자녀에 비해 부모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김정민, 이유리, 2010). 조은영과 정태연(2005)은 한부모 가정 자녀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한부모에게 위로를 요구받으며, 부모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행위를 발달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화 경험은 어린 아이로서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억압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기 쉬운 경향이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부모화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혼이나 부부갈등 등으로 인해 본래 부모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부모역할 포기나 방임, 가정 환경적 결핍 등을 들고 있다(김은경, 2011; 송은주, 이지연, 2010).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심이 강조되는 서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자녀의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정서적 안정감, 심리적 적응과 같은 부분에서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avies, 2002; Jurkovic, 2001).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빈번하게 불공평 경험에 노출되면 지나친 책임의식,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김경미 등, 2006; 최명선, 강지희, 2008). 부모화를 경험한 청소년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불필요한 걱정,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Byng-Hall,

2002).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소외, 자기 비난 및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Byng-Hall, 2002), 낮은 대인관계 수준(Jurkovic, Thirkeld & Morrell, 2001), 수치심과 과도한 죄의식을 경험한다(Well & Jones, 2000).

반면 자녀의 부모화 경험이 긍정적 강화를 받음으로써 규범 순응, 충성심, 책임감, 타인 배려 등이 증가하는 등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 측면도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부모화된 자녀는 건강한 타인 배려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특성이 있으며(조은영, 정태연, 2005), 유능하고 적응적인 아이로 보일 수 있다(조은영, 2004). 아울러 부모화 경험을 통해 사회에 속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유순화, 2010).

한부모 가정 자녀의 부모화 경험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자녀의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자녀의 부모화에 대한 부정적 요인 및 긍정적 요인에 대해 추가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구조의 결손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 증상 및 부적응 현상은 아동·청소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특히 이러한 부적응적인 장기적인 영향력을 밝히려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영국의 국가 종단조사에서는 아동 중·후기(7세~16세)에 경험한 부모의 이혼은 초기성인

기의 낮은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혼가정 자녀가 양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에 비해 정신병리의 위험이 39%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Fagan & Rector, 2000). 또한 Magnuson와 Berger(2009)는 미국의 7세~13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국가 중단조사(NLSY)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여성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의 행동문제가 양부모 가정 아동에 비해 매년 더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Farrington(1990)의 연구에서는 10세 이전에 경험한 부모의 이혼은 청소년 비행과 성인 범죄의 주요한 예언변인임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해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선아(2011)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5년간 중단자료 분석을 통해, 이혼가정 자녀의 경우에 공격성과 불안, 우울 등의 외현화, 내면화 문제 모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성인기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Maier와 Lachman(2000)의 연구에 따르면, 17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경우 자기 수용수준이 낮아지고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에 부모 이혼을 경험한 경우,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ustonen et al., 2011). 특히 6세~8세경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초기 성인기에 이성과의 관계에서 높은 불안을 느끼는데, 연인관계에서 배신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연인으로부터 상처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Fagan & Rector, 2000).

사별가정 자녀 역시 성장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부모와의 사별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된 청소년의 상실감을 제대로 다루어주지 않을 경우 성인기의 우울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Coffino, 2009). 또한 아동기에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준이 상승하였는데(Luecken, 2000), 그들에게서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인 코티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사별 경험이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아동기의 가정해체 경험은 그 시기에만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심리적 증상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대인관계 및 이성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단적 관점에서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 및 발달에 대해 살펴본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중단연구결과들은 시사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개인 내적 보호요인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양부모 가정 자녀에 비해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남영옥, 2010; 박찬인, 양정빈, 2010; 유안진 외, 2005; 윤명숙 외, 2012; Fagan & Churchill, 2012; Magnuson & Berger, 2009; Sterrett et al., 2009). 그러나 한부모 가정이 구조상 취약한 상황에 있더라도 모든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발달 과정에서 심리 사회적 적

응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며, 양부모 가정 자녀들과 비교하여 내면화, 외현화 문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적응 문제 수준이 낮게 나타난 연구들도 있다(김선아, 2011; 이애재, 2000; Thomas et al., 2011). 또한, 부모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사별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성숙하다고 여기거나(Balk & Corr, 2002), 책임감 및 독립심이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필균, 2001)들을 통해 가정 해체의 경험이 오히려 심리적 성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정해체 경험 그 자체가 심리적 성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개인의 내적 자원에 의해 보다 적응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보호요인들로 자아존중감, 자아 통제감, 자아 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 낙관성, 영성 등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김선아, 2011; 김승경, 강문희, 2005; 남영옥, 2010; 석주영, 박인전,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은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차유림, 2011), 학교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영옥, 2010).

적극적인 문제해결 대처 행동은 부모의 이혼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시키고,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승경, 강문희, 2005; 김오남, 2004; 박한샘, 2003). 적극적인 문제해결 대처 양식을 지닌 아동은 사회적 지지나 자신의 자원을 잘 이용하여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게 되고, 행동 문제도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박한샘, 2003).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처행동은 이혼 가정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며(김승경, 강문희, 2005),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적응수준이 높다(장경문, 2003; 장은옥, 이승희, 곽수란, 2010). 즉, 청소년 자녀가 높은 자아탄력성을 지니면, 위험요인을 가진 환경에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처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적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언급되는 개인 내적 보호요소로는 종교참여를 통한 영적안녕감이 있다(차유림, 2012). 차유림(2012)은 부모의 사별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영적 안녕감이 조절하여 사별 자녀의 적응을 돕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발달 및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개인 내적인 자원에 따라 고위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 내적인 보호요인이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부정적 적응을 일으키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부모-자녀관계의 기능

자녀의 건강한 발달은 자녀를 둘러싼 가족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는 가족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 자녀가 잘 적응하는 경우를 가족의 건강한 기능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의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모-자녀관계는 생물학적인 유대관계 뿐 아니라, 상호작용적이며 애정에 기본을 둔 관계이다(윤기영, 2002).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양육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 애착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가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며 내면화 문제는 낮게 나타났다(이주리, 2008). 또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토대로 한 권위적 양육행동은 자녀가 배움을 가치 있게 여기고, 배움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며, 학업 능력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Bronte-Tinkew, Scott, & Lilja, 201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서로 간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의미를 수립하고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 및 행동으로(노정화, 2006)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의 친밀감 증진에 도움이 되고, 심리정서적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민하영, 1992; 이금, 박옥임, 이경주, 1994). Kim과 Brody(2005)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가 학교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일수록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 된 후 양육부모와 자녀의 개방

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현숙, 1993). 즉,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배미경, 2010).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지연(2007)의 연구에서는 부와 자녀의 의사소통시간이 길수록 자녀가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한부모 가정 자녀의 행동발달 및 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권용신, 백경숙, 2004).

부모애착은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 인지적 성숙, 자율성의 발달, 또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rown & Wright, 2001). 어머니와 애착이 안정적 일수록 자녀는 학교생활에서 교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왕혜옥, 김광웅, 2004). 한부모 가정의 부모애착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그 영향력이 두드러진다(이경은, 이주리, 2008). 부모의 별거나 이혼은 자녀의 부모애착 수준을 낮게 만들고, 부모의 보살핌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Woodward, Ferguson & Belsky, 2000). 한부모 가정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은 일반가정 자녀의 부모애착보다 뚜렷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민, 장재홍, 2008; Farndale, Burton-Smith, Montgomery, & Shute, 2003). 그러나 이혼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부모애착이 긍정적인 경우 이혼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져(김정민, 유안진, 2005; 유안진 외, 2005;

이혜승, 이순형, 2003), 부모애착이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

한부모 가정의 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가족구조의 결함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받드시 겪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부모 가정의 적응에 있어서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애착과 같은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박주연 2011; Hsieh & Leung, 2009). 이러한 가족의 기능적 측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가족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보다 잘 적응하고, 가족 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인 가족탄력성이 주목받고 있다.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이란 변화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저항하거나 적응하고자 하는 가족의 특성, 자원, 자산을 의미한다(McCubbin & McCubbin, 1988). 가족탄력성은 가족에 대한 기존의 문제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의 강점 중심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가족의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가족탄력성의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Walsh(1998)는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신념, 조직패턴, 의사소통을 제안하였으며, McCubbin과 McCubbin(1988)은 가족 탄력성을 가족응집성과 가족강인성으로 구성하였다.

한부모 가정의 가족탄력성과 관련해서는 한부모들의 적응을 다룬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한부모 가정 부모들의 적응은 부모들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이 한부모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한부모 가정 자녀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탄력성이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들의 가족에 대한 만족도(현은민, 2008), 가족구성원의 적응정도(이은희, 구정화, 2009), 생활만족도(박주연, 2011), 자존감과 부모역할만족도(천혜정, 임유미, 200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또한,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모두 일상생활스트레스와 가족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김현주, 이성애, 2011).

가족탄력성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들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생활만족도, 우울, 정서·행동 문제, 학교적응 등을 다루고 있었다. 박주연(2011)은 가족의 탄력성이 낮다고 보고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낮고,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가족탄력성의 구성개념 중의 하나인 가족강인성(McCubbin & McCubbin, 1991)은 개인 차원이 아닌, 가족 차원에서 스트레스 생활사건이나 삶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요인으로 개념화 된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함께 협력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위탁(commitment),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나타내는 도전(challenge),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감과 관련된 통제(control)로 구성되며, 이는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 강인성이 높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심리, 행동적 적응이 높고(Shin et al., 2010), 일

상생활 스트레스와 가족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김현주, 이성애, 2011). 또 다른 가족탄력성의 구성개념 중 하나인 부모 이혼에 대한 신념은 이혼가정 자녀가 정서, 행동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Shin et al., 2010). Shin 외(2010)는 자녀가 부모 이혼에 대한 신념과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하고, 부모와 자녀가 가족 위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토론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족탄력성을 구성하는 개념 중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한부모 가정 자녀가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 흥미가 떨어지는 것을 완화하였고(김현주, 이성애, 2011),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은, 최은희, 2010).

이와 같이 한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가족 관계와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가족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행섭, 김진숙, 2009; 현은민, 2008). 이는 가족의 유대감과 적응성이 높고, 독립적이면서 상호지지적인 분위기가 일 때, 가족의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고, 보다 적응적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족탄력성이 한부모 가정 자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탄력성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요인들 또한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이성애, 2011; Shin, Choi, Kim, & Kim, 20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탄력성은 한부모의 스트레스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

어지고 있어서 가족탄력성이 한부모 가정 자녀, 특히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공동 양육자의 역할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심리적 문제 등을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최근 공동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동양육(coparenting)이란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다른 쪽에게 지지 또는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컬으며(Gable, Belsky, & Crnic, 1995; McHale & Rasmussen, 1998),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공유하고, 얼마나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주로 쓰여 왔다. 해외에서는 공동양육자의 개념으로 'copar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부모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부의 공동양육 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개념으로 비양육부모 또는 조부모 및 친척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동양육에 대한 개념이 서양에 비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한부모 가정의 조력자 개념으로는 비양육부모로 지칭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을 분담하는 대리양육자의 개념으로는 공동양육자라는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유희정, 2005; Amato, 2000). 박한샘과 전명희(2003)가 이혼부모의 자녀양육 관련 사이버 상담을 분석한 결과,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접촉이나 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한부모 가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가정의 경우에 비양육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9.8%에 불과하고, 47.8%는 전혀 연락이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6). 김영희와 한경혜(2006)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의 절반 이상(53.9%)이 자녀와 전혀 만나지 않거나 1년에 1~2회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응답하여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혼 후, 공동양육자와 자녀의 친밀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혼 전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친밀도가 51.6%였던 것이 이혼 후 27.4%로 절반가량 감소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또한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자가 자주 바뀌거나 부모가 아닌 친척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심리, 사회적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유희정, 2005).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와 공동양육자 간의 협력적 관계 역시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와 같은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었다(유희정, 2005; Jones, Shaffer, Forehand, Brody, & Armistead, 2003). 즉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공동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자녀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Jones, Forehand, Dorsey, Foster, & Brody, 2005). 또한 공동양육자와 주양육자 사이의 높은 갈등 수준은 사춘기 위험행동을 예언하는 변인이 되며(Baril et al., 2007),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Feinberg, Kan, & Hetherington, 2007). 한편 한부모의 전 배우자에 대한 긍정

적 감정이 이혼 후 자녀와의 접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한경혜, 2006). 뿐만 아니라, 공동양육에서 발생하는 삼각화(triangulation)는 장기적으로 사춘기 자녀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되고 있어(Buehler & Welsh, 2009) 공동양육의 질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서구에서는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에서의 협력적 부모 역할, 공동양육자의 양육 행동 등에 대하여(Amato, 2000; Jones et al., 2003)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부모 가정의 지지자원으로서 공동양육자에 대한 연구(김영희, 한경혜, 2006; 유희정, 2005)가 이혼가정에 한정하여 극히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지자원으로서 공동양육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역할

또래지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 요인이 연구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우울(김오남, 2004)과 적개심, 분노나 공격행동(Hamama & Ronen-Shenhav, 2012), 문제행동(변호순, 최정균, 2011)을 완화하고, 생활만족도(김오남, 2004)와 인지능력(변호순, 최정균, 201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아동기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는

청소년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박은민, 2010; 양숙경, 문혁준, 2012; 이경연, 박기환, 2010; Ciarrochi & Heaven, 2009; Wilkinson, 2010).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혼가정 자녀들의 또래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높고 (Fagan & Churchill, 2012), 교사나 부모에 의한 평가에서 이혼가정 자녀들의 또래 관계가 더 나쁘다고 보고됨으로써(Fagan & Churchill, 2012), 일반적으로 이혼가정 자녀들이 양부모 가정 자녀들에 비해 또래 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또래 친구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부자 가정의 청소년들이 술과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데에 또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Crawford & Novak, 2008). 하지만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형성하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는 이들의 외현화, 내면화 문제를 완화하고(김오남, 2004; 이순형 외, 2005; Chester, Jones, Zalot, & Sterrett, 2007; Rodgers & Rose, 2002), 학업 성취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Garg et al., 2007; Hsieh & Leung, 2009)를 통해 또래관계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와 또래 관계의 질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친구관계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김오남, 2004),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이순형 외, 2005)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친구 관계는 이들의 내면화 문제를 완화하였으며(Chester et al., 2007; Rodgers & Rose, 2002),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또래관계의 질이

좋을 때 공격성과 비행행동이 덜 나타났다(Chester et al., 2007).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또래 관계는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이혼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친구들과 동질감을 갖고 친구들을 신뢰할수록 학업 성취동기가 올라가는 경향이 보고되었다(Hsieh & Leung, 2009). 또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게는 학업 동기가 강한 또래 친구가 이들의 학업적 포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g et al., 200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또래로부터 받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감독이 부족할 수 있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에게 또래들의 행동과 문화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교사지지.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적인 성취 뿐 아니라 정서 및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는 대상이다(Werner & Smith, 1982).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는 일반 아동 청소년의 적응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박정주, 2011; Chong, Huan, Quek, Yeo, & An, 2010). 한부모 가정의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도 교사의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학업과 학교적응(남영옥, 2010; 차유림, 2011), 심리적 적응(남영옥, 2010)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김승경, 강문희, 2005). 이혼가정의 아동의 경우, 교사 지지를 높게 평가하는 학생들은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이들

의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경, 강문희, 2005).

반면, 교사의 지지가 한부모 가정 자녀의 행동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차유립, 2011)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김승경과 강문희(2005)의 연구에서 교사의 지지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 대처나 회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반응방식은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김선아(2011)도 이혼한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게 학교 상담 교사가 과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제력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고(Hsieh & Leung, 2009), 교사와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내면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교사와의 애착이 높고, 교사의 지지가 과도하다고 느낄 경우, 교사의 역할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사 개입 전략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웃 및 지역사회지지. 한부모 가정 자녀가 지각한 이웃 지지는 이들의 우울과 불안, 생활만족과 관련이 있다. 이웃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중간 수준으로 지각한 자녀들에 비해 우울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연, 2011). 반대로, 동네나 종교단체에 있는 어른들의 정서적, 물질적 지지는 이혼가정 자녀들의 우울과 불안을 완화하였고(전수정, 2003),

이웃으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이웃의 지지를 낮게 지각한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연, 2011).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지각하는 이웃의 지지는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distress)와 생활만족도, 소외감과 관련이 있다. 김은경(2003)은 한부모 가정 가구주는 이혼 후 처지가 비슷하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웃으로부터의 지지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웃 지지를 높게 평가하는 부모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생활에서 더 만족하였고, 이웃 지지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느끼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박주연, 2011). 반면, 여성한부모의 경우 도움을 주는 이웃이 한 명도 없는 집단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한 두 명 있는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영, 2007).

지역사회의 환경과 지원 또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심리사회적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지역사회 환경은 한부모 가정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요소로 고려된다.

한부모 가정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환경이 긍정적일 때,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경제적 불안정감을 덜 느끼고, 가족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Hsieh & Leung, 2009), 불안행동, 비행행동, 위축행동이 낮게 나타났다(박찬인, 양정빈, 2010). 또한, 지역사회와 정부로부터 지지를 높게 평가하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자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생활에서 더욱 만족하였다.

특히, 한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에, 지역사회나 정부로부터의 애정, 관심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 지지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받는 정보적 지지를 낮게 평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박주연, 2011). 지역사회 지지의 한 부분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이용 또한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한부모 가정의 4~6학년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박찬인, 양정빈, 2010).

한부모 가정의 부모, 자녀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다루어 온 국내 연구들과는 다르게, 국외에서는 거주 지역 이웃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과 관련하여 살펴 본 연구가 있었다. Zolot, Jones, Kincaid와 Smith(2009)의 연구에 의하면, 거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부모 가정 자녀의 공격성, 법규 위반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offmann(2006)은 여성가구의 비율, 민족의 동질성, 실업 남성의 비율, 빈곤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한부모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지역사회의 특성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 가정 부모들에 대한 이웃 지지와 지역사회 지지는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보호요인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한 개입 및 지원 프로그램 동향

지금까지 한부모 가정의 형성 원인과 유형

에 따른 특성, 한부모 가정과 그 자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발달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내·외적 보호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부모 가정과 자녀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이나 가족의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발달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로 한부모 가정의 아동(김경신, 2009; 김인숙, 김명숙, 2007; 김정희, 정다운, 2011; 오미경, 이수희, 2010; 최윤영, 2010)으로 편중되어 있고 다루어진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김경신, 2009; 김정희, 정다운, 2011; 박설미, 여인숙, 2009, 오미경, 이수희, 2010), 자기효능감(권선영, 이미옥, 2011), 사회성과 부모표상지각(오금조, 유영달, 2010), 불안과 또래관계(김은아, 김정남, 2011), 스트레스(정재원, 김갑숙, 2011), 우울(김경신, 2009)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미술치료, 놀이치료와 같은 예술치료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개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술치료(권선영, 이미옥, 2011; 정재원, 김갑숙, 2011; 김경신, 2009; 김정희, 정다운, 2011; 박현주, 2011), 무용 및 동작치료(김인숙, 김명숙, 2007; 최윤영, 2010), 문학치료(박설미, 여인숙, 2009), 반편견 유아교육(서영숙, 황은숙, 2002), 운동 치료(조현철, 양재철, 2008)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불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청소

년기 발달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이중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김정미, 최외선, 2007),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서조절에 미치는 효과(박성미, 이지연, 장진이, 2012),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방진희, 2004),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학교 기반 집단개입 프로그램 연구(성지희, 2006)가 있다.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지원 대상이 주로 여성한부모로 편중되어 있었고, 이들에 대한 경제교육(김상훈, 이재진, 강승묵, 김수아, 박선영, 박유리, 2010), 자조집단 프로그램(양한연, 2009), 양육태도 교육(이수림, 이자영, 2011) 등이 있었다.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와 자녀간 관계 회복 및 강화를 위하여 가족치료(박태영, 2006), 원예치료 집단상담(차지영, 천성문, 김세일, 이형미, 윤영숙, 2011), 해결중심 미술치료(김서현, 홍은주, 2008) 등도 연구되고 있다.

국외에서도 사회적 지지 개입(Hudson, Campbell-Grossman, Keating-Lefler, & Cline, 2008; Lipman & Boyle, 2005), 가족치료(Becker & Liddle, 2001; Doyle, McLean, Washington, & Grange, 2009)와 같이 가족 단위나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및 양육 훈련 프로그램(Lipman & Boyle, 2005)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김승권, 김연우, 2012; 이해경, 2011). 기존의 한부모 가정 정책 연구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김연우, 2012; 조성연, 2004), 한부모 가정 정책(김승권, 김연우, 2012; 최연실, 2005), 한부모 가정 정책의 국제비교(강지원, 2009; 박복순, 2008; 송치호, 여유진, 2010; 심창학, 2003; 이용우, 2006), 한부모 가정의 빈곤 및 대책연구(김진욱, 2010; 성미애, 진미정, 2009; 이승미, 김선미, 2005)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은 2007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사업, 여성가족부의 복지급여 등 다양한 급여·서비스, 기타 부처의 감면혜택 및 서비스로 구분되며(김승권, 김연우, 2012), 소득 및 양육, 주택, 자립, 의료, 정서적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시설을 이용하며 생활지도, 급식, 학습지도,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부모의 보살핌을 보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성미애, 진미정, 2009; 이승미, 김선미, 2005).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최우선 복지욕구인 경제적 자립과 자녀양육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양육비지원, 한부모교육지원, 자녀돌봄 부담완화에 초점을 둔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김연우, 2012). 형성 원인 및 유형에 따라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들의 특성이 다른 만큼 한부모 가정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보호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편이긴 하나, 다양한 한부모 가정 유형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의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대상이 한정적이고 횡단적 측면에서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한 단순한 효과들을 살펴보고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가 발달 및 적응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나 종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발달에 따른 종단 연구와 처해진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한부모 가정의 형성 원인과 유형에 따른 특성,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자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발달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내·외적 보호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한부모 라는 가족 형태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정의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한부모 가정 관련 연구도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 이전 연구들이 주로 가족의 구조적인 결핍이나 한부모 가정 자녀의 부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면, 그 이후의 연구들은 가족의 기능적 측면이나 보호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을 단순히 비교한 연구에서 매개나 중재 변인들의 효과를 통해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 한부모 내에서의 차이를 형성 원인에 따라 좀 더 세분화 하여 비교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둘째, 한부모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이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한부모 가정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성원들의 정신적, 사회적 측면은 물론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국가족문화원, 2009). 저소득, 빈곤가정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부담 등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자녀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발달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책이나 제도, 개입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해결과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형성원인과 형태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부모 가정은 공통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하여 자녀 양육문제, 사회의 부정적 편견 등에서 일반 가정보다 환경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가족구조의 결손에 초점을 두어 한부모 가정의 세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동질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형성원인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특성이나 자녀의 적응양태가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오승환, 2001; 차유림, 2012). 한부모 가정은 형성원인과 형태에 따라 이혼가정, 사별가정, 미혼모·부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가정의 각각의 특성과 겪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이혼가정은 이혼 전까지 또는 이혼 후에도 지속되는 부부 갈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심리 정서적 불안정, 사별가정은 한쪽 부모의 상실로 인한 슬픔과 위축이라는 각자 다른 과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형성원인으로 인해 각자가 가진 문제들은 자녀의 발달에도 다른 영향을 준다. 모자가정은 경제적인 부분을, 부자가정은 자녀 양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 연구,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한부모 가정이 곧 모자가정임을 가정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부모의 성별, 연령대별, 경제수준별, 형성원인별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 겪는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형태에 따라 청소년이 다른 유형의 적응 및 발달과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모 자체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지원, 양육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정 자녀는 발달단계에서 양부모 가정 자녀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외현화 문제 및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외현화 문제를 여자가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나타냈다. 이밖에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낮은 학업성취, 낮은 진로포부, 학업 중단과 같은 학교 부적응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아동·청소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심리 정서적 적응과 대인관계문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성별을 고려한 차별적 개입과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외 연구는 어린시절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것이 성인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단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성인기까지 장기적 관점으로 한부모 가정 자녀의 발달을 살펴보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부모 가정 자녀는 부모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발달상의 욕구 충족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자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행위를 발달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부모화 경험이 어린 아이로서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억압하게 됨으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자녀의 부모화 경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부모 가정 자녀 중에는 양부모 가정 자녀와 적응에 차이 없거나 오히려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부모 가정 자녀가 모두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기존의 관점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일 수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해 한부모 가정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보호요인은 크게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내적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자아 탄력성 및 적응 유연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낙관성, 영성 등의 요소가 주로 연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내적 보호요인은 부모 자녀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부모와 자녀 간 안정된 애착, 적절한 부모의 양육행동, 긍정적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가족적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보호요인으로는 친구나 교사, 이웃의 지지, 지역사회의 환경과 지원 등이 있었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자신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개인내적 보호요인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일곱째, 가족 구조의 취약성이 아닌 가족 기능과 가족 탄력성과 같은 가족 요인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예언변인이 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가족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만, 모든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구조의 결손이 곧 문제로 연결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가족의 기능적인 요인에 대해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양부모 가정의 자녀들과 적응 상 큰 차이가 없으며, 대인관계와 학업성적, 자아 존중감 등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청소년들의 존재에 대해 확인하면서, 가족 구조적 측면의 결손을 무조건 문제로 연결해서 보는 시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박찬인, 양정빈, 2010; Amato & Keith, 1991). 가족 탄력성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의 부모나 자녀의 적응에 큰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많은 연구들은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강인성, 의사소통 등을 탄력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가족 탄력성이 가족 구조보다 오히려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예언변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여덟째, 최근 공동양육자의 역할과 지지가 한부모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혼가정에서 갈등적 부부관계가 유지되면서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만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공동양육자로서

비양육부모의 역할과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사별가정 역시 한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하여 한부모가 겪는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이 조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처럼 한부모 가정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양육자의 역할을 법적,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중재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가정 자녀에 대한 심리 정서적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그 대상이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서 겪는 어려움과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였다.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적응이 성인기에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하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적인 보호요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적인 보호요인, 또래관계, 교사관계 같은 사회적 보호요인, 학업성취와 진로 포부과 관련된 학교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나 지역사회, 국가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함으로써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의 증가는 개인이나 그 가족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역량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사회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한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소득지원, 주택지원, 자립지원, 양육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같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부모 가정은 평균보다 낮은 소득, 주거불안정, 불안정한 근로조건 속에 있으며, 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자녀양육비를 사용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과 자녀에 대한 대책은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의 최우선 복지욕구인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양육비 지원, 한부모 교육지원, 자녀돌봄 부담완화 정책에 초점을 둔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며(김연우, 2010), 수급대상자의 유형에 적합한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과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2000년 이후 국내외 학술분야를 막론하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으로 한부모 청소년 자녀를 이해하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전반적인 동향을 다루다보니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과 관련된 각각의 중요한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앞서 주요한 특징으로 살펴본 빈곤, 보호요인,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좀 더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2000년 이후 한부모 가정 자녀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다루고 있는 주제도 다양해졌지만, 아직은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설을 세우고 진행되는 연구들이 많다. 한부모 가정과 그들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는 연구자들부터 중립적인 자세로 객관적으로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들에 대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 된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역경을 잘 이겨내고 더 건강하게 적응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탄력성, 부모화의 긍정적 측면, 역경 후 성장 등과 같은 변인이나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이유로 형성된 한부모 가정의 유형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의 특성이 같지 않음을 고려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 및 그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과 사회적 차원의 지원들은 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의 다양한 특성에 근거하여 추후 연구에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한부모 가정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과 지원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청소년 미혼모가정 증가와 다

문화가정 이혼율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다른 한부모 가정보다 더 많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자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357-379.
- 강지원 (2009).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보건사회연구*, 29(2), 30-54.
- 고은주, 김진옥 (2009). 한부모 가구의 빈곤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219-236.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공수연, 양성은 (2011). 성인 자녀의 부모사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885-896.
- 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83-98.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 권선영, 이미옥 (2011). 입체조형 활동을 중심

- 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 연구, 18(3), 1-20.
- 권용신, 백경숙 (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9(2), 87-99.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김경미,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2006).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살펴본 부모화의 하위 집단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19-32.
- 김경신 (2009).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우울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4(2), 35-54
- 김경은, 최은희 (2010).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41-653.
- 김경희 (2007). 효과적인 한부모 여성가장 집단을 위한 웹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1), 10-13.
- 김광혁 (2010).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 빈곤의 기간 및 시기, 정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1), 5-31.
- 김대동 (2004).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민강, 이희영, 최태진 (2012).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아동교육, 21(2), 75-90.
- 김민경, 최은영 (2003). 집단미술활동이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7(2), 59-74.
- 김상훈, 이재진, 강승목, 김수아, 박선영, 박유리 (2010). 여성 한부모 가정의 경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학술대회논문집, 2010(1), 260-260.
- 김서현, 홍은주 (2008). 해결중심 가족치료를 적용한 집단 모자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모-자 관계,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5(2), 295-316.
- 김선아 (2011). 이혼가정아동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문제 발달궤적과 초기 보호요인과 관계: 결혼과정과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6(3), 5-34.
- 김수정 (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연구, 7(1), 93-133.
- 김수주 (2004). 미술활동을 통한 집단상담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 및 사회적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전주람, 김영숙 (2012).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연구고찰 -가족학 전문학술지 논문들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113-128.
- 김승경, 강문희 (2005). 이혼가정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6(1), 261-278.
- 김승권, 김연우 (2012). 한부모가족정책의 실태와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186, 59-69.
- 김연우 (2010). 가족구조의 변화가 성인이행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건강상태, 우

- 울, 교육성취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225-246.
- 김연우 (2012).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7, 50-59.
- 김영희, 한경혜 (2006).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자녀와의 접촉 및 관계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4(8), 23-32.
- 김오남 (2004). 모자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1(3), 43-62.
- 김은경 (2003).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가구주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11). 가정환경과 수치심, 죄책감이 남녀 청소년의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77-90.
- 김은아, 김정남 (2011). 놀이중심 자기표현 훈련이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불안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8(2), 134-150.
- 김인숙, 김명숙 (2007). 노인-한부모·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 학회논문집, 8(1), 23-52.
- 김재철, 성경주, 최원형 (2010). 초기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 애착의 영향비교. 아동교육, 19(1), 97-113.
- 김정미, 최외선 (2007). 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3(1), 61-82
- 김정민, 유안진 (2005).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 인간발달연구, 12(4), 159-176.
- 김정민, 이유리 (2010). 청소년의 부모-자녀의 사소통, 정서지능 및 부모화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3-26.
- 김정민, 장재홍 (2008). 일반가정 청소년과 이혼가정 청소년에서 부모애착과 이성애착간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5(4), 151-172.
- 김정희, 정다운 (201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967-981
- 김진미 (2006).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한의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1(1), 105-124.
- 김진옥 (2010). 한부모 가구의 빈곤과 소득이전: 양부모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1), 101-125.
- 김행섭, 김진숙 (2009). 자녀 스트레스가 여성 한부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처전략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9(4), 1567-1584.
- 김현주, 이성애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한부모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3(3), 215-241.
- 김혜영 (2012).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 201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2-32.
- 김희주, 권종희, 최형숙 (2012). 양육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6), 121-155.
- 남영옥 (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219-243.

- 노정화 (200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동아일보 (2009. 10. 10). [인천/경기] 학업포기 중고생 작년 5만2524명... 인천은 3077명 [On-Line]. <http://news.donga.com/3/all/20090930/8815804/1>.
- 류경희 (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8.
- 민하영 (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민하영, 이윤주, 김경화 (2008). 여성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15-23.
- 박복순 (2008).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한국한부모가정학. 1(1), 41-73.
- 박설미, 여인숙 (2009). 놀이 중심의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이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3(2), 29-44.
- 박성미, 이지연, 장진이 (2012).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서조절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9(3), 565-581.
- 박은민 (2010). 청소년의 교사에착, 또래에착, 모에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75-88.
- 박정주 (2011). 교사에착이 학생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 분석. 한국교육연구, 28(3), 333-352.
- 박주연 (201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찬인, 양정빈 (2010).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7(2), 41-65.
- 박태영 (2006). 이혼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가족치료. 사회과학논총, 9, 125-158.
- 박한샘 (2003).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문헌적 고찰. 상명대학교 교수논문집(2차).
- 박한샘, 연문희 (2004). 부모 이혼 후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1-29.
- 박한샘, 전명희 (2003). 이혼부모의 자녀양육관련 상담분석; 사이버상담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1(1), 137-151.
- 박현선 (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빈곤대리변수와 빈곤동반 위험요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26, 113-137.
- 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의 중단적 상호 관계: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2(3), 183-206.
-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0(3), 269-295.
- 박현주 (2011). 한부모 가족 아동의 심리적응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7(1), 207-235.
- 방진희 (2004).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 사회 적응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실천, 4, 113-142.
- 배미경 (2010). 한부모가정 유형에 따른 자녀

- 의 학교적응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교류 분석학회, 7(2), 47-73.
- 변호순, 최정균. (2011). 미국 저소득 미혼모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133-163.
-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 서영숙, 황은숙 (2004).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 교육. 서울: 양서원.
- 석소현, 신성희 (2010).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학력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40(3), 367-377.
- 석주영, 박인전 (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4(2), 29-50.
- 성미애, 진미정 (2009). 빈곤 한부모 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가족 양립. 가족과 문화, 21(3), 1-28
- 성정현, 송다영, 한정원 (2003).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273-299.
- 성지희 (2006). 이혼 가정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위한 학교 기반 집단개입 프로그램 연구. 학교사회복지, (11), 85-115
- 송은주, 이지연 (2010).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모화 경험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1(1), 335-354.
- 송치호, 여유진 (2010).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 간 빈곤을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 미국과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17(3), 223-255
- 신애란 (2002).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인순 (2008). 비만한 빈곤 아동청소년 이야기. 청소년문화포럼, 18, 249-258.
-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 심창학 (2003). 프랑스의 한부모 및 가족 복지정책의 특징. 한국가족복지학, (12), 125-154.
- 양소영 (2002). 편부모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해결 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숙경, 문혁준 (2012).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2), 115-130.
- 양한연 (2009). 싱글맘의 심리적 지원체계로서의 자조모임. 한국한부모가정학, 2(1), 39-56.
-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 여성가족부 (200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연합뉴스 (2011. 08. 25). 양친구 한부모 가정 정신건강 조사 [On-Lin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28749>.
- 오금조, 유영달 (2010).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회성과 부모

- 표상 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5(1), 83-100.
- 오미경, 이수희 (2010). 집단놀이치료 활동을 통한 한부모 가족 방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237-259.
- 오승환 (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 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한국아동 복지학*, 12, 109-133.
- 왕혜옥, 김광웅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2), 77-88.
- 유성경 (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6(2), 201-217.
- 유순화 (2010).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0), 233-252.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 유희정 (2005). 이혼 후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185-216.
- 윤기영 (2002). 부모-자녀관계 관련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교육발전*, 21(1), 169-197.
- 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 (2012). 이혼가정 자녀의 상실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 73-104.
- 이경상 (2011). 빈곤이 청소년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13(3), 261-280.
- 이경연, 박기환 (2010). 청소년의 부적응적 사고와 또래관계의 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 5-23.
- 이경은, 이주리 (2008).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연구: 양부모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5(2), 1-16.
- 이금, 박옥임, 이경주 (199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6-25.
-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수림, 이자영 (2011).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유아기편) 개발 요구 분석: 드림스타트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논의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9(1), 1-21.
- 이숙, 지선례 (2010).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가족 변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5), 119-128.
- 이순형, 이옥경, 김지현 (2005).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과 불안 판별 연구: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99-111.
- 이승미, 김선미 (2005).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례에 비추어 본 지원방안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95-112.
- 이에재 (2000). 편부모가족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양부모가족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학연구*, 7(1), 69-93.
- 이용우 (2006).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

- 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 복지정책, 25, 53-80
- 이윤주, 김경화, 민하영 (2008). 인문계 고등학교의 자살생각 및 시도와 소외감 및 진로 장벽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6(1), 69-85.
- 이은희, 구정화 (2009). 가족탄력성이 한 부모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61-80.
- 이정영 (2007).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관망이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소외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 (20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9(3), 115-125.
- 이주리 (2010).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23-130.
- 이필금 (2001). 사별 편모 가정의 사회·심리적 자립방안에 관한 질적 접근.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경 (201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변천에 따른 수급대상자 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11(1), 61-84.
- 이혜승 (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청소년학연구, 11(1), 421-441.
- 이혜승, 이순형 (2003).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내면적 증세에 미치는 영향: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0(1), 11-29.
- 장경문 (2003). 연구논문: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10(4), 143-161.
- 장덕희, 장경아 (2009). 이혼가족자녀의 학교적응에 가족보호요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5-24.
- 장덕희, 황동섭 (2009). 가족보호요인이 이혼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자가정자녀와 부자가정자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개발연구, 15(4), 413-431.
- 장은옥, 이승희, 박수란 (2010).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을 매개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23-42.
- 전수정 (2003). 양육 및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묘순 (2011).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 청소년문화포럼, 26, 192-229.
- 정재원, 김갑숙 (2011). 협동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8(6), 1205-1224.
- 정지연 (2007). 부자가정의 가족기능과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 정현숙 (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정혜림 (2012). 빈곤가정 한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영유아의 언어·사회성발달 간 관

- 계: 한부모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3), 67-97.
- 조성연 (2004).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2(1), 153-167.
- 조성연 (2004). 이혼으로 인한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과 청소년의 문제실태와 지원방안. 미래청소년학회지, 1(1), 55-80.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33-853.
- 조현철, 양재철 (2008). 유아체육편: 한부모 가정 아동의 운동프로그램이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3(1), 553-562
- 주소희 (2008). 누적적 위험요인과 이혼가정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6, 61-86.
- 지은선, 조결자 (2002). 학령기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적응 정도 비교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4), 743-156.
- 차유림 (2011).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학업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혼가족과 사별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1), 31-55.
- 차유림 (2012). 부모사별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신앙과 학문, 17(2), 201-227.
- 차지영, 천성문, 김세일, 이형미, 윤영숙 (2011). 한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원예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7(1), 181-205
- 채선미, 이영순 (2011).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의 정서, 자아강도 및 사회적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5(1), 1-16.
- 천혜정, 임유미 (2007). 모자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이혼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3), 123-152.
- 최명선, 강지희 (2008).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43-53.
- 최윤영 (2010). 집단 무용치료가 부자 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학회지, 10(2), 35-47
- 최연실 (2005). 한국에서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현황과 방향. 사회과학연구, 20, 1-15.
- 최윤정, 이시연 (2006). 빈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 -보호요인에 관한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21, 89-113.
- 통계청 (2010). 인구통계자료.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2). 장래가구추계.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가족문화원 (2009). 새로 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한국 가족보건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2).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허미영 (2006).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계기와 가족의 역할-부산. 경남지역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4), 235-262.
- 황은숙 (200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

- 비교 연구. *한부모 가정연구*, 2(1), 1-20.
- 현은민 (2008).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여성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4), 59-84.
- 홍순혜 (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 부모의 경제 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23-38.
-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1269-1287.
- Amato, P. R., & Flower, F. (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3), 703-716.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43-58.
- Balk, D. E., & Corr, C. A. (2002). Bereavement during adolescence: A review of research.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199-218).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il, M. E., Crouter, A. C., & McHale, S. M. (2007). Processes linking adolescent well-being, marital love, and co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645-54.
- Baris, G. (1994). *Caught in the Middle: Protecting the children of high-conflict divorce*. NY: Lexington Books.
- Becker, D. & Liddle, H. A. (2001). Family Therapy with Unmarried African American Mothers and Their Adolescents. *Family Process*, 40(4), 413-427.
- Bjarnason, T., Andersson, B., Choquet, M., Elekes, Z., Morgan, M., & Rapinett, G. (2003). Alcohol Culture,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Alcohol Use: Multilevel Modeling of Frequency of Heavy Drinking among 15-16 Year Old Students in 11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4(2), 200-209.
- Billingsley, A., & Giovannoni, J. M. (1971). Family, one-parent.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6(1), 362-373.
- Bronte-Tinkew, J., Scott, M. E., & Lilja, E. (2010). Single Custodial Fathers' Involvement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Outcomes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2(5), 1107-1127.
- Brown, L. S., & Wright, J. (2001). Attachment theory in adolescence and its relevance to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8(1), 15-32.
- Buehler, C., & Welsh, D. P. (2009). A processmodel of adolescents' triangulation into parents' marital conflict: The role of emotional reactiv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2), 167-80.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Chester, C., Jones, D. J., Zalot, A. & Sterrett, E. (2007).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youth from single mother homes: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parents and pe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3), 356-366.
- Christopher, K. (2000). *The effects of family work and welfare on mother's poverty in the U.S and across western nation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 Chong, W. H., Huan, V. S., Quek, C. L., Yeo, L. S., & An. (2010). Teacher-Student Relationship: The Influence of Teacher Interpersonal Behaviors and Perceived Beliefs about Teacher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Low Achieving Students in Asian Middle Schoo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1(3), 312-327.
- Ciarrochi, J., & Heaven, P. C. (2009). A longitudinal study into the link between adolescent personality and peer-rated likeability and adjustment: Evidence of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978-986.
- Coffino, B. (2009). The role of childhood parent figure loss in the etiology of adult depression: findings from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1(5), 445-470.
- Crawford, L. A., & Novak, K. B. (2008). Parent-child relations and peer associations as mediators of the family structure - Substance use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Issues*, 29(2), 155-184.
- Davies, P. T. & Forman, E. M. (2002). Children's patterns of preserving emotional security in the interparental subsystem. *Child Development*, 32(6), 97-108.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es. *Family Process*, 41(3), 551-555.
- Farrington, D. P. (1990). "Age, Period, Cohort and Offending" in Gottfredson, D. M and Clarke, R. V. (Eds) *Policy and Theory in Criminal Justice*, (pp.51-75), Aldershot: Avebury
- Hudson, D. B., Campbell-Grossman, C., Keating-Lefler, R., & Cline, P. (2008). New mothers network: The development of an Internet-based social support intervention for African American mothers.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31(1), 23-35.
- Doyle, A. C., McLean, C., Washington, B. N., & Grange, D. (2009). Are Single-Parent Families Different from Two-Parent Families in the Treatment of Adolescent Bulimia Nervosa Using Family-Based Trea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2(2), 153-157.
- Dumka, L. E., Roosa, N. W., & Jackson, K. M. (1997). Risk, conflict,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adjustment in low income, Mexican immigrant, and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2), 309-323.
- Ehrensaft, M. K., Cohen, P., Chen, H., & Berenson, K. (2007). Developmental transitions in youth behavioral opposition and maternal beliefs in social ecological contex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4), 577-588.
- Esmaili, N. S., Yaacob, S. N., Juhari, R., &

- Mariani, M. (2011). Post-divorce Parental Conflict, Economic Hard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of Divorced Families. *Asian Social Science*, 7(12), 119-124.
- Fagan, P. F., & Churchill, A. (January 11, 2012). *The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Washington, D. C.: Marriage and Religion Research Institute.
- Fagan, P. F., & Rector, R. (2000). *The effects of divorce in America.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Executive Summary. No 1373)*. Washington, D. C.: The Heritage Foundation.
- Farndale, F., Burton-Smith, R., Montgomery, I. & Shute, R. (2003). Anxiety in adolescents: The contribution of parental divorce, parental conflict, and quality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5), 226-226.
- Feinberg, M. E., Kan, M. L., & Hetherington, E. M. (2007).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coparenting conflict on parental negativity and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687-702.
- Fleming, S. J., & Adolph, R. (1986). *Helping bereaved adolescents: Needs and responses*. In C. A. Corr & J. N. McNeil (Eds.), *Adolescence and death* (pp.151-166). New York: Springer.
- Gable, S., Belsky, J., & Crnic, K. (1995). Coparenting during the child's 2nd year: A descriptive accou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609-616.
- Garg, R., Melanson, S., & Levin, E. (2007). Educational aspiration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rom single-parent and two biological parent families: A comparison of influenti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8), 1010-1023.
- Goosby, B. J. (2003). *The impact of poverty duration on youth behavioral and cognitive outcomes. Ph. d. dis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 Greiff, A. P., & Fillis, Al. J. A. (2009). Resiliency in poor single-parent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90(3), 279-285.
- Guttmann, J., Geva, N., & Gefen, S. (1988). Teachers' and school children's stereotypic perception of The Children of Divorc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5(4), 555-571.
- Hamama, L., & Ronen-Shenhav, A. (2012). Self-control, social support, an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in divorced and two-parent families.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34(5), 1042-1049.
- Hampden-Thompson, G. (2009). Are two better than one? A comparative study of achievement gaps and family structure.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39(4), 517-534.
- Hoffmann, J. P. (2006). Family structure, community context,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6). 867-880.
- Hooper, L. M. (2007). Expanding the discussion regarding parentification and its varied outcome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9(2), 322-337.
- Hsieh, M. O., & Leung, P. (2009). Protective factors for adolescents among divorced single-parent families from Taiwan. *Social Work*

- in Health Care*, 48(3), 298-320.
- Jablonska, B., & Lindberg, L. (2007). Risk behaviours, victimisation and mental distress among adolescents in different family structur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8), 656-663.
- Jones, D. J., Forehand, R., Dorsey, S., Foster, S., & Brody, G. (2005). Coparent support and conflict in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headed families: Associations with maternal and child psycho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3), 141-150.
- Jones, D. J., Shaffer, A., Forehand, R., Brody, G., & Armistead, L. P. (2003). Coparent conflict in single mother-headed African American families: Do parenting skills serve as a mediator or moderator of child psychosocial adjustment?. *Behavior Therapy*, 34(2), 259-272.
- Jurkovic, G. J.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0(2), 245-258.
- Jurkovic, G. J., Thirkei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in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8.
- Kalman, M. B. (2003). Adolescent girls, single-parent fathers, and menarche. *Focus on Family Health*. 17(1), 36-40.
- Kim, S., & Brody, G. H. (2005). Longitudinal pathways to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black youth living in single-parent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305-313.
- Kincaid, C., Jones, D., Cuellar, J., & Gonzalez, M. (2011). Psychological control associated with youth adjustment and risky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 familie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20(1), 102-110.
- Kubler-Ross, E., & Kessler, D. (2000). *Life lessons*. New York, N. Y.: Scribner.
- Lichter, T. D. (2007). Family structure and poverty. In Ritzer, George (ed.),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ology*. Blackwell Publishing, Blackwell Reference Online. 22 March 2011. <http://www.blackwellreference.com>.
- Lipman, E. L., & Boyle, M. H. (2005). Social support and education groups for single mother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community-based program. *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73(12), 1451-1456.
- Luecken, L. J. (2000). Parental caring and loss during childhood and adult cortisol responses to stress. *Psychology and Health*, 15, 841-851.
- McCubbin, H. I., & McCubbin, M. A. (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247-254.
- McCubbin, H. I., & McCubbin, M. A. (1991). Family stress theory and assessment. In H. I. McCubbin & A. I. Thompson (Eds).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pp.294-312)*.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 Magnuson, K., & Berger, L. M. (2009). Family Structure Satates and Transition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Well-Bing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3), 575-591.
- Maier, E. H., & Lachman, M. E. (2000). Consequences of early parental loss and

- separation for health and well-being in middle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83-189.
- Mandara, J., Rogers, S. Y., & Zinbarg, R. (2011).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marijuana use. *Journal of Marriage & Family*, 73(3), 557-569.
- McHale, J. P., & Rasmussen, J. L. (1998). Coparental and family group-level dynamics during infancy: Early family precursors of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during pre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39-59.
- McLeod, J. D., &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51-366.
- Mercer, D. L. & Evans, J. M. (2006). The impact of multiple losses on the grieving proces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n the grieving proces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 219-227.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k,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Journal of Child Family Study*, 16, 39-47.
- Mustonen, U., Huurre, T., Haukkala, A., Kiviruusu, O., & Aro, H. (2011). Long-Term Impact of Parental Divorce on Intimate Relationship Quality in Adulthood and the Mediating Role of Psychosocial Resour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4), 615-619.
- Rice, F. P., & Dolgin, K. G. (2009). 청소년 심리학[*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1에 출판).
- Rodgers, K. B., & Rose, H. A. (2002).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ts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4(4), 1024-1037.
- Shin, S. H., Choi, H., Kim M. J., & Kim, Y. H. (2010). Comparing adolescents' adjustment and family resilience in divorced famil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primary caregiver.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9, 1695-1706.
- Sterrett, E. M., Jones, D. J., & Kincaid, C. (2009). Psychosocial adjustment of low-income African American youth from single mother homes: The role of the youth-coparent relationship.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8(3), 427-438.
- Thomas, B., Yiota, X., Christina, P., & Olympia, T. (2011). Preschool age children, divorce and adjustment a case study in greek kindergarten. *Electronic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al Psychology*, 9(3), 1403-1426.
- Walsy, F., & McGoldric, M. (1991). *Living Beyond Los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ang, M., & Ngai, S. S. (2011). The Effects of Single Parenthood on Educational Aspiration: A Comparative Study of Children in the United Kingdom and Hong Kong. *Child & Youth Services*, 32(2), 135-154.
- Wells, M., & Jones, R. A.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 Werner, E., & Smith, R. (1982). *Vulnerable but*

-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Hill.
- Wilkinson, R. B. (2010). Best friend attachment versus peer attachment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ce*, 33(5), 709-717.
- Woodward, L., Ferguson, D. M., & Belsky, J. (2000). Timing of parental separation and attachment to parents in adolescence: Results of a prospective study from birth to age 16.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2, 162-174.
- Zalot, A., Jones, D. J., Kincaid, C., & Smith, T. (2009). Hyperactivity, impulsivity, inattention (HIA) and conduct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oles of neighborhood and gen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4), 535-549.
- 1차원고접수 : 2013. 1. 25.
심사통과접수 : 2013. 3. 14.
최종원고접수 : 2013. 3. 23.

A Understandi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Adaption in Single Parent 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Hyun-Ju Nam¹⁾

Hyoung-Sik Yoon¹⁾

Tae-Young Lee¹⁾

Chae-Young Shin¹⁾

Dong Hun Lee²⁾

¹⁾Pusan National University

²⁾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for understanding the issues related to adolescents' development and adaption in single-parent families. This study reviewed 117 academic articles for conceptua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and adaption of adolescents in single-parent famili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major aspects related to the single-parent family's adolescen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verty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single-parent families, Second, the types of single-parent families and its characteristics, Third,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external and internal problems, school adaptation, parenting, long-term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their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single-parent family's.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ve factors and familial structural defects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yle, parent-adolescents relationship, family resilience, the role of co-parents, social support systems including teacher, peer, and community), Lastly intervention and helping programs for the single-parent family and their adolescents. The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were provid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for helping adolescents in single-parent families.

Key words : single-parent family, adolescents, development, adaption, literature review